

일본 면 방직 침구 소재 사업의 현황과 미래

일본 면 방직 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침구(寢具)·침장(寢裝) 사업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양이 끝없이 증가하는 데 따라 크게 변하고 있는데, 이제는 면 방직 기업도 소요되는 소재를 해외에서 생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침구 소재들과 의류품(衣類品)의 품질을 비교해 보면, 수입 침구는 수입 의류품보다도 아직 10년은 떨어져 있다고 하면서도, 터무니없이 싼 침구 소재들은 해마다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침구 소재도 오랫동안 쉬트(sheet)류와 같이 극히 단순한 것으로 한정되었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춘하절용의 오리털 경(輕)침구류나 모포류로 서서히 다양화·고급화하여 일본의 주요 침구상들도 중국에서 오리털 이불을 제조하여 직수입하게 되었다. 그럴수록 일본 면 방직의 침구 사업은 치열한 경쟁으로 신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독자성(獨自性)을 적극적으로 보이게 하여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일본의 면 방직이 앞으로도 침구·침장 사업의 기반을 일본에 두고 소재 공급을 계속하려면 차별화 소재를 계속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면 방직 회사에서는 “양(量)을 추구하는 경쟁은 안한다”고 하고, “단조로운 천이나 상품으로는 가격 경쟁만 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쟁은 안하겠다”는 방직 회사도 있어, 볼륨 존(volume zone)의 상품으로는 채산을 맞추기 어렵게 되었다. 현재의 면 방직은 “중국에는 없는 상품이나 고급품용 소재만을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거나 “니치(niche) 부분의 특수 상품만을 개발”하고 있다.

면방 각사가 개발하고 있는 차별화 소재는 오리털 이불용 고밀도 직물에 집중되고 있다. 당초에는 세계의 초장면(超長綿)을 사용함으로써, 면화 산지명을 상품명에 붙여 차별화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쟁에 한계가 와서 사용 원사의 세번수화를 강조하게 되어 200수 이상의 세번수로 제작하기도 하고, 마침내는 300수 면사로 제작한 직물까지 등장하였다.

그 후 혼방사 직물이나 교직물이 시장에 돌기 시작하자 “이불감은 면 100%”라는 말이 격언처럼 되어 시장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양이 크지는 않다. 혼섬 제품이 시장에 돌면서 폴리에스터를 중심으로 한 합섬 혼방이나 견 혼방 등의 신상품이 곧잘 눈에 띄게 되었다. 혼방·교직이 늘어난 것은 부드러운 촉감이나 산뜻한 사용감을 이들 신소재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항균·방취·제균·소취 등의 가공은 기본이고 그 이상의 기능이 요구된다”고 하여 여러 기능 가공이 차별화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어 다양화하였고, 최근에는 기능 가공도 건강 유지 및 증진, 미용 등이나 촉감에 관한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다. 소재로부터 가공에 이르는 차별화는 이제 각사의 상품이 비슷비슷하게 되었으나 해외 상품과의 차별화에 아직 효과가 있어 앞으로는 더욱 각사의 독자성이 뚜렷이 요구되고 있다.

◎ 다이와보 - 경량 소재로 차별화

2004년도 추동절 상품 기획의 포인트는 종전과 같이 “소재의 차별화”였다. 이에 각사의 특징이나 개발 역량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다이와보는 “가벼운 소재”를 강조한 상품을 “라이트 프루프(Light-proof)”라

는 상표로 상품화 하였다. 이 상품은 4~5년 전에 개발되었는데, 이제까지는 특정 고객에게만 판매해 왔지만, 앞으로는 판로를 넓혀 나갈 것이다.

1m²에 80g 되는 소재를 기준으로 90~100g 되는 소재를 갖추고 있다. 폴리에스터를 위사로 사용함으로써 면의 태와 워셔블(washable)성이 뛰어난 특징이 있다.

제직 후의 후가공은 항균·방취·제균·소취 기능에, 천연의 약제만을 사용하여 진드기를 막아주는 방충 기능을 가공함으로써 “사람에의 부드러움”을 지켜온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 도요보 - 독자적인 “엑스” 소재를 제안

도요보는 “누가 봐도 특징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도요보의 독자적인 소재 “엑스”를 침구용 소재로 제안하고 있다. 이 “엑스” 섬유는 흡습·발열(吸濕發熱) 섬유로서 그 동안 스포츠와 내의용으로 사용되었고, 침구 소재로서는 처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 소재가 붉은 색을 띄고 있기도 하여 침구 분야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60수 혼방사로 짠 소재로서 오리털 이불감 2점과 일본식 이불감 1점의 샘플을 만들었다. 앞으로는 커버류로서도 용도를 개발하며, 면 100%의 신상품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신탄섬 소재 “크리스펠” 등을 기본으로 한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 구라보 - 생활 공간 종합 상품을 개발

구라보는 그 동안 침구 소재를 개발하는 키워드를 “실내 상품 개발”로 바꾸었다. 구라보는 2년 전부터 생활 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품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생활용 각종 잡화만을 판매하는 생활 잡화 전문점이 늘어나면서 구라보는 최근에 상품 판매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하였기 때문이다.

구라보는 공장 마다의 프로젝트로서 신상품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방향에서 생활 공간에 알맞은 종합적인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만들어진 신상품으로 “호조(北條)” 공장이 개발하려는 “자연 리빙(living)” 기획으로 대나무나 골풀(燈心草 : 利尿劑), 라벤더(lavender : 향료 등의 원료) 등으로부터 만든 섬유에서 실을 뽑아 교직으로 직물을 만들어 덮개나 쉬트, 침대 쿠션 등을 만들고 있다.

구라보는 구라보의 종합 섬유 전시회에서 “자연 리빙” 기획의 하나로 건강을 위한 생활 공간 상품을 발표하였다.

◎ 시키보 - 중국 염색 공장에 대한 기술 지도로 일본 수준의 이불감 생산

시키보는 일본 내에서 소재를 차별화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신상품에도 주력하고 있다. 2003년 중국의 상하이에 “상하이 시키시마 복(福)방직품 유한공사”를 합판으로 설립하고, 염색 공장에서 이불감 등을 프린트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 가공한 프린트는 2004년 추동 상품으로 일본에 수출하여 판매하고 있다.

시키보는 중국의 합판 공장 설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월간 가공 능력은 235만m의 규모이다. 합판한 현지 기업에도 일본의 염색 전문가 5명

이 기술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키보로부터 파견된 두 사람까지 합치면 7명이 기술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의 품질 수준에 맞는 제품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봉제 생산도 계획하고 있어, 오리털 이불감은 봉제만 하여 일본으로 수출한다. ♣